

# 2023년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및 개선 사례

## □ 개요

시설 이용객 및 공단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활동·개선사례를 소개

## □ 점검내용

### ○ 사업장 종합점검 실시

- 산업안전보건, 재난관리체계,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재해예방 점검활동

점검구분	실시시기
CEO 안전보건 종합점검	2023년 중 총 4회 실시
사업장 종합점검	CEO 안전보건 종합점검 포함 월 2회 이상 실시

### ○ 시민재해 위험성평가 실시

-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위험성평가를 시민의 시설 이용 관점에서 실시하여 시민재해의 유해위험요소를 중점적으로 파악

점검구분	실시시기	개선사례
시민재해 위험성평가 실시	2023년 5월, 11월	-망마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슬로프 안전난간대 보수 -진남수영장 타일 탈락 예방을 위한 보수 등 개선

### ○ 재난·안전사고 예방 점검 실시

점검구분	실시시기	비고
해빙기 안전점검	3월	시설 내·외부 침하, 균열, 배관 누설 등 점검
사업장 유해위험작업 파악	2월	사업장 내 작업의 유해위험성 파악 및 평가
폭염 대비 업무추진 현황 점검	하절기	여름철 온열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현황 점검
자연재해 대비 점검	7월	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한 점검
명절 연휴 전·후 안전점검	1월 및 9월	설, 추석 연휴 전·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
태풍 '카눈' 대비 특별점검	8월	태풍 '카눈'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장 특별점검
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상태 점검	8월	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, 게시 등 전반적인 점검
가을철 화재 예방 점검	10월	가을철 화재 위험 증가에 따른 사전예방 점검
동절기 대비 안전점검	12월	동파 예방, 한랭질환 등 예방 점검
장애인과 함께하는 안전점검	12월	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이용객과 함께 안전점검 실시

□ 주요 개선 사례①

**환경자원사업소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개선**

○ 유해·위험요소

- 환경자원사업소 내 1층-지하간 설비를 이동하기 위한 설비 반출 개구부가 존재하며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되어 있음
- 안전난간 하부에 발끝막이판이 없어 수공구 등이 지하로 떨어질 시 지하에 있는 근로자가 맞을 위험이 존재함

○ 개선 대책

- 안전난간 하부에 적절한 발끝막이판 설치

○ 개선 현황

개선 전	개선 후
	
안전난간 하부 발끝막이판 미설치	발끝막이판 설치 완료

□ 주요 개선 사례②

도시미화팀 차량 정비용 장비 거치대 구매



○ 유해·위험요소

- 청소차량의 타이어 정비를 위해 사용하는 임팩트 렌치 등은 근로자가 직접 들고 사용하는 장비임
- 무거운 장비를 장시간 들고 사용하는 것과 지속적인 진동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음

○ 개선 대책

- 근로자가 직접 장비를 들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거치대 구매하여 사용

○ 개선 현황

해당 장비	개선 후
	
<p>차량 타이어 정비를 위한 장비(중량물)</p>	<p>장비를 거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치대</p>

□ 주요 개선 사례③

**공영주차장 계단 난간 물체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 예방 조치**

○ 유해·위험요소

- 공영주차장 계단실과 이어진 1층에는 보행로와 연결되어 있음
- 계단 난간 사이로 물체가 떨어지면 보행 중인 이용객이 맞을 수 있음

○ 개선 대책

- 상층으로부터 떨어지는 낙하물로부터 1층 보행로로 이동하는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그물망 설치

○ 개선 현황

개선 전	개선 후
	
<p>계단실 하부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없음</p>	<p>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완료</p>

□ 주요 개선 사례④

수영장 코스로프 턴버클 신체 끼임 위험요소 개선


○ 유해·위험요소

- 수영장의 라인 구분을 위해 설치한 코스로프의 턴버클에 신체가 끼이거나 부딪혀 찰과상 발생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

○ 개선 대책

- 위험점이 존재하는 부분에 보호조치 실시

○ 개선 현황

개선 전	개선 후
	
금속부분에 신체가 끼이거나 부딪힐 수 있음	끼이지 않고 부딪혀도 부상이 없도록 조치